전북 수산식품, 태국서 아세안 시장 공략 성과

40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 전북 홍보관 운영 통해 현장계약 6만 달러 달성

전북지역 수산식품 기업들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6만 달러의 현장 계약 성과를 거두며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 IMPACT Muang Thong Thani 전시장에서 열린 'THAIFEX-ANUGA ASIA 2026'에 참가해 전북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148개국 3,590개 기업이 참가하고 9만4천여 명의 글로벌 식품업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방문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전시회다.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태국을 아세안 식품시장 진출의 전략 거점으로 삼고 도내 해양식품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박람회에는 도내 해양식품기업 4개사가 참가했으며, 전북 홍보관에서는 총 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6만 달러 상당의 현장 계약이 성사됐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 IMPACT Muang Thong Thani 전시장에서 열린 'THAIFEX-ANUGA ASIA 2026'에 참가해 전북 홍보관을 운영했다.

바이오진흥원은 박람회 참가에 앞서 태국과 아세안 지역의 소비 트렌드와 유통 구조를 분석하고 기업별 제품 특성에 맞춘 상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에 집중했다.

전시 현장에서는 간편하게 섭취하거나 조리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제품이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모았다. 건강지향 소비와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동남아 시장 특성과 맞물리면서 제품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참가기업인 두손푸드는 마시는 전복죽 제품을 선보여 식사 대용 및 건강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은성푸드는 수산 원료를 활용한 간편식 제품군을 소개하며 한식의 맛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채중석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전북 수산식품이 태국과 아세안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지 유통망 확보와 시장 맞춤형 상품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전북 수산식품과 간편식 제품의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현지 바이어 수요에 맞춘 후속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확보한 상담 결과와 바이어 반응을 바탕으로 태국과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후속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어별 관심품목 관리와 샘플 제공, 추가 상담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중소벤처24' 고도화 나선다

중기부, 통합회원 서비스 시범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기부가 6월 5일 오전 9시부터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중소벤처24 고도화 사업의 첫 단계로, 중기부와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정책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창업, 연구개발(R&D), 수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이용하기 위해 기관별 누리집마다 별도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했다. 통합회원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다양한 정책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중소벤처24와 신규 통합회원 서비스를 일정 기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주 활용하는 증명서 발급과 지원사업 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 환경(UI·UX) 개선과 기업 맞춤형 서비스 기반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향후 통합회원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및 지원사업 데이터를 연계하고, 오는 9월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지원사업 추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초고령사회 대응 협력 강화

국민연금공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가져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김성주 이사장이 4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인구전략 관점에서 범정부 종합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 구축 방안과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만큼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이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4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였으며, 올해는 초고령사회 주요 과제로 떠오른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치매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분야별 협의체 출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반려동물 질병 연구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임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월 26일 경북 김천 본부에서 '반려동물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하고 반려동물 질병 연구 현황과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관련 산업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검역본부가 올해 수행 중인 연구과제 186건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과제는 26건에 그쳐 연구가 산업동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바이러스 질병과 내에 '반려동물질환연구실'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연구, 생체자원은행 운영 기반 마련, 줄기세포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반려동물 질병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산업계 관계자, 학계 및 임상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연구 추진 방향이 소개됐으며 향후 연구과제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검역본부는 법정·신종 감염병에 대한 능동적 감시체계 구축과 질병 데이터 기반 발생 예측 시스템 도입,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통한 진단 역량 강화, 반려동물 노화 관련 질환 연구 및 줄기세포 치료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질병 예찰 강화를 위해 민간 동물병원과 대학이 참여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국가 단위 질병 데이터 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임상 환경에 맞는 진료행위와 질병명 표준화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혈액과 조직, 세포, 유전정보 등을 수집·관리하는 바이오뱅킹 제도 마련 필요성과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료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활용 기준 수립 방안도 논의됐다. 국산 반려동물 백신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역학 데이터와 병원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검역본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연구 기획에 반영하고, 반려동물질환연구실을 중심으로 질병 연구와 데이터 구축, 생체자원 확보 등 연구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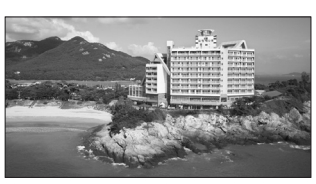
/오상근 기자

부안 모항해나루가족호텔 객실 리모델링 완료

전북개발공사가 부안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의 객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여름 성수기를 맞아 새롭게 단장한 객실 운영에 나선다.

전북개발공사는 호텔 이용환경 개선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객실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객실 전반의 시설과 환경을 정비해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 환경을 개선했다.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여행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호텔은 시설 개선과 함께 다양한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민 할인 혜택을 비롯해 방문객 이름에 특정 글자가 포함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이름값 하는 이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숙박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 편의와 혜택 확대에 힘쓰고 있다.

/오상근 기자